

창세기(25)

창세기 3 장 14 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에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흠을 먹을 것이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의 씨는 그녀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말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또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에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미였음이라.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족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 받은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의 빛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도 빛을 비추며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창세기 1 장부터 3 장까지를 오래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과 과학자들은 창세기 1 장부터 3 장까지를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 장에서 너희가 모세 말을 믿지 않는데 즉 모세가 쓴 글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고. 모세가 한 말 중에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 창세기 1 장 1 절부터 3 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수 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진행된 과학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1 장 1 절로부터 창세기 3 장 마지막 절까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고는 별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인의 씨에 관해서 성경을 깊이 찾아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분명히 ‘여자’ 그러면 여자입니다. ‘남자’는 남자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지요. 15 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뱀에게 말한 것입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기어 다니는 털이 없는 짐승들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특별히 뱀은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여자의 씨’라고 했습니다. The seed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 장 35 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영어성경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즉 남성, 여성, 중성을 완전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안 찾아보아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말은 이것이 남성 여성 중성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한국어로 영어를 비교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요.

누가복음 1 장 34 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기 ‘거룩한 이’를 무엇이라 번역했나면 HOLY THING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성 명사입니다. 결국 이분은 30 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왕권을 다 인수하시는 이것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에 찬 경륜이요. 때가 되어 기한이 차게 되면 이루어진다. 마치 때가 차서 마리아를 덮을 때 그 마리아가 남자의 씨 없이 여인의 씨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거룩한 이가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 장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남자만 씨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씨를 가진 여인이 바로 마리아지요. 로마서 8 장 16 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여기 ‘성령이’ 할 때 보면 The Spirit itself 라고 했어요. himself 가 아닙니다. 성령은 중성입니다. 26 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친히’라고 할 때 The Spirit itself 라고 했지 himself 라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 장에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나오는데, '실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실로' 역시 중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어떤 여자도 생식을 가능케 하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만이 여인의 씨 여인으로써 유일한 씨를 가졌다면 이 씨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 장 23 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제 삼일 후에 살아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이 복음 안에 너희가 분명히 거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여인의 씨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인의 씨인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육체로 오셨다가 다시 가신 그분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유는 이 말씀만이 여인의 씨인 그 말씀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철학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의 근원이 이성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 이성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마음은 짐승보다도 더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것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니엘에게 임했던 가브리엘도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내가 너에게 총명을 주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총명’도 영어로 understanding 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혼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제가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거든요. 즉 말씀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잉태할 때 성령이 덮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덮어버리면 그 말씀을 받아드리는 사람은 바로 거듭나서 그 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알아지게 되지요.

제가 어릴 때 일자무식의 할머니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볼 때 “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무엇을 연구해서 되는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는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덮을 때. 이 여인의 씨 같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배운 모든 학문은 버렸습니다. 아주 무식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씨는 뱀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시몬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 열둘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셨지요? ‘마귀 같다’ 하시지 않고 마귀라고 하셨어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계속 주님을 괴롭힐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습니다. 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란 얘기이죠.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침례 받으러 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피하라 하더냐.” 하며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실 머리를 부수는 것과 발꿈치를 부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입으신 것은 경미한 손상입니다. 마귀가 앞으로 입을 손상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여인의 씨를 여성으로 바꾸어서 결국 마리아를 신격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중성이나 여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성이 되어버리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 일점 일획이라도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큰 결과를 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정말 깨닫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그저 이 땅에서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교제나 하고 좋은 직장 다니며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별 상관이 없고 이런 말씀들이 귀찮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적인 깨달음 없이는 참 소망 속에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셔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16 장 20 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 예언된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이런 예언에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서만 보겠습니다. 시편 7 장 16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안에 전체적인 픽처가 들어오죠. 시편 7 장 16 절 말씀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정수리가 머리 아닙니까? 다음에 68 편 21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여기도 정수리 머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110 편 6 절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어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 나라의 머리들이 정사의 마귀 권세를 얻어서 다스리는 왕들 아닙니까? 결국 주님께서 다 상하게 하고 부수어버리고 왕권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죠. 140 편 9 절 보겠습니다.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박국 3 장 13 절, 하박국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 장면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본 하박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에 빠지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주님의 재림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텐데 그것 하나 모르고 다른 것들만 아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것을 보고 정말 아무 것도 없고 내가 거지가 되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가운데 13 절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라고 하며 역시 원수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고 밝혔습니다.